

등록금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록

1. 일 시 : 2015.12.24.(목) 16:00~18:00
2. 장 소 : 제 1 회의실
3. 참석위원 : 최경희, 노재성, 김상배, 김경효, 김백겸, 이경진, 황준상, 홍원인
불참위원 : 임윤희, 유종근, 김천호
4. 회의내용
 - 최경희 위원장은 성원이 되어 개회를 선언하다
 - 조경숙 간사는 2016학년도 본예산편성 주요일정, 본예산편성 기본방향, 2015대비 2016학부 등록금 수입 비교 및 변동 사항, 2016학년도 본예산 지출 요구예산 총액 대비 과부족액을 설명하고, 과부족액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예산 축소및절감, 기금인출, 기금적립취소, 사업보류 등에 대해서 설명하다
 - 최경희 위원장은 등록금 인상에 따라 사업추진 보류사업 중 일부는 우선순위를 가지고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본 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주시기를 요청하다
 - 교직원대표 위원은 국가장학II유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대학교육경쟁력강화를 위해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하였으며, 참석한 위원들은 본 사항에 대해 공감하다
 - 학부학생대표위원은 학부생등록금은 국가장학II 지급정책에 의해 등록금인상이 불가능하다고 보며, 학생 입장에서 등록금 인상을 반대한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다
 - 조경숙 간사는 학부등록금을 동결할 경우 현재 보류사업으로 분리하고 있는 교직원의 인건비 순인상을 시행하지 못하게 되며, 8년 동안 누적 물가상승률이 23%인 반면 누적임금인상률은 13%로 타 대학에 비해 임금이 낮은 편임을 설명하고, 아울러 경쟁력 있는 우수교수와 정규직원의 이직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을 설명하다.
 - 교직원대표 위원은 전국사립대학 156개 대학 중 직원 1인당 서비스 학생수가 126위이며, 계약직 비율도 24.7%가 되며, 상대적으로 직원1명의 학사행정 서비스 업무량이 상당히 많아 올해도 신입 직원 2명이 중도 퇴직하였다. 우리학교 총예산 2,400백억원 대비 직원수 159명이 재직하고 있으며, 서강대는 1,600백억원 대비 194명의 직원이 재직하고 있다. 따라서 직원의 임금인상이 반드시 시행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다
 - 조경숙 간사는 본예산 편성 시 학생 직접교육비를 가장 최우선적으로 예산 편성하였으며,

임금자연승급분, 공과금을 우선순위로 편성하였음을 설명하고, 등록금인상 없이는 인건비 순
임금인상분과 신규사업에 투자할 여력이 매우 부족하다고 설명하다.








- 학부모대표위원은 아주대학교가 다른 대학에 비해 등록금의존율 및 순위가 어떤지 질문하다.
- 조경숙간사는 등록금 의존율은 50%이하이며, 중앙일보평가 사립대학 중 12위임을 설명하다.
- 교직원 대표위원은 재단 전입금 규모는 어느 정도 인가를 질문하다
- 조경숙 간사는 2015년 법정부담금은 28억원을 재단에서 지원받았으며, 2016학년도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음을 설명하다.
- 교직원대표 위원은 재단의 전입금을 늘리도록 노력해야 하며, 특히 재단에서 운영하는 장례
식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내 구성원이 적극 사용하도록 해서 자연스럽게 장례식장이 홍보
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구성원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다.
- 교직원대표 위원은 정통대 전자공학과와 비교하여 CK특성화사업으로 전자과 반도체 공정을 직
접 체험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시행하고 있어, 그 결과 취업률의 제고가 있었다. 이러한
효과가 다른 학과에서도 성과로 도출될 수 있도록 교육의 질제고/혁신을 위한 재원을 마련
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다.
- 조경숙 간사는 CK-II 본부사업예산으로 비참여학과를 중심으로 공모제를 통해 학과교육 혁신사
업 제안을 받아 지원할 계획인데,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진행 할 것임을 설명하다.
- 교직원대표 위원은 등록금 인상 최대 인상율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문의하다.
- 조경숙 간사는 3년 평균 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지 않아야 하며, 얼마 전 교육부에서 차년도
대학 등록금 최대 인상률 1.7%를 공표한바 있음을 설명하다.
- 교직원대표 위원은 학교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국내대학 뿐 아니라 세계대학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등록금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하면서 인상율은 1.7%로 하는 것을 제안하다.
- 최경희 위원장은 학부 및 대학원 등록금을 인상시켜 보류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학교발전에 절대
적인 사항이나, 학부등록금의 경우 국가장학II 유형에 의거 인상에 제한을 받고 있음을 다시 설
명하다.
- 최경희 위원장은 위원들에게 제공된 등록금/비등록금 예산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시어, 차기 회의
에 의견 주시기를 당부하다
- 최경희 위원장은 다음 회의 일정과 안건사항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다.
- 조경숙 간사는 학부등록금과 대학원등록금 인상률 최종확정을 위해 등록금책정(안) 심의, 교내

시설물공사시행(안)에 대해 심의 의결이 진행되어야 함을 설명하다. 회의일정은 다음주 월요일부터 목요일 사이에 진행되어야 함을 설명하다.

- 최경희 위원장은 다음 회의에 오늘 논의했던 사항들에 대해 추가 의견 등을 교환하고, 간사가 설명한 심의 의결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을 다시 설명하다. 3차 회의는 12월29일 12시에 개최하기로 하다.

2015. 12. 24.(목)

등록금심의위원회

| | | | |
|---------|---|--------|---|
| 위원장 최경희 |  | 위원 임윤호 | (서명) - 불참 |
| 위원 김상배 |  | 위원 황준상 |  |
| 위원 노재성 | (서명) | 위원 유종근 | (서명) - 불참 |
| 위원 김경호 |  | 위원 김천호 | (서명) - 불참 |
| 위원 김백겸 |  | 위원 홍원인 |  |
| 위원 이경진 |  | | |